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모님의 안식 / 8월 15일

## 마태오 제10주일 구세주 변모 축일 종례일

제1조 /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축일 제2응송 / 178, B 181
- 제1조 찬양송 / 81, A 211
- 축일 입당송 / 178, B 182
- 축일 찬양송 / 178, B 181
- 축일 시기송 / 178, B 183
- 사도경: 고린토 전 4, 9-16 / 봉독서 202
- 복음경: 마태오 17, 14-23 / 114, B 46
- ‘주의 이름이’ 대신 ‘구세주 변모 축일 찬양송’ / 180, B 181
- 축일 성모송 / 180, B 185
- 축일 영성체송 / 180, B 186

## 성 브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어둠을 걷어내려고 손을 휘저지 마십시오”

브르피리오스 성인께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길 원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온통 어둠인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어둠을 걷어내려고 이리저리 손을 휘저으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어둠이

건혀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고, 성인들과 교부들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어둠을 쫓아내는 빛입니다.”



## 중보하시는 성모님

교회는 성모님을 드높이 공경합니다. 주님의 구원사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루빔보다 더 고귀하시고 세라핌보다 더 영화로우신 분'으로 성모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늘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모 안식 축일을 맞아 교회에 전해지는 성모님의 안식에 관해 알아보면서 축일을 경건하게 맞이합시다.

교회의 전승은 성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계시는 당신의 아드님 곁으로 가시는 안식이 가까워졌을 때,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황급히 모여들어 성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하였다. 토마 사도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장례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성모님은 겻세마니 언덕의 무덤에 안장되었고 사흘 후에 도착한 토마 사도가 고별의 예를 올리려고 무덤을 열어 보았더니 성모님의 육신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성모님이 주님처럼 육신으로 승천하셨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교회는 승천에 대한 계시가 없었으므로 안식의 잠에 드셨다고 믿으며, 따라서 축일도 '안식 축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모님의 무덤은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 거룩한 유해는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곳에는 기념 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모님의 부모와 보호자 성 요셉의 무덤이 근처에 있다.

세상에 계실 때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셨던 성모님은 하늘에 계시는

당신의 아드님 곁에 가셔셔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중보해 주신다. 하늘과 세상을 이으시고 하느님께서 오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 성모님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영혼과 육신을 경건하게 다듬어 나가는 사순절 기간에 '성모기립 찬양의식'으로 끊임없이 성모님을 찬양하고, 안식 축일에는 '성모 기원 의식'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와 주일의 성찬 예배나 각종 기도식에서 하느님께 완전하게 바치신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성모님의 현신과 모든 성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평생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우리의 온 생명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 성모님 안식 축일

8월 15일에 기념하는 성모 안식 축일은 정교회의 큰 축일 가운데 하나이다. '안식'은 라틴어 '도르미티오'(dormitio)에서 왔으며, 그 뜻은 '잠들다'이다.

성모 안식 축일은 성모님의 안식과 장례, 부활 그리고 몸을 가지고 하늘 나라로 옮겨간 것을 기념한다.

### 축일에 대한 설명

성모님 안식 축일에 대한 중심 자료는 교회의 구전(口傳) 전승과 기록된 전승들이며, 거기에는 성 디오니시오스 아레오바고인, 성 요한 다마스쿠스인, 성 안드레아 크레타의 주교 등의 저술과 교회 성가와 성화들, 그리고 성 요한 신학자가 쓴 외경(外經: 정경[政經]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적 내용이 포함된다.

정교 전승에 따르면, 동정녀 마리아는 오순절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의 집에 살았다. 주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원천이 되었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에게 나타나 언제 영원한 나라로 떠날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성모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기도와 금식으로 이 일을 준비하였다.

성모님이 안식하시던 날,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옮겨와 성모님 곁에 모였다. 다만 토마 사도만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사도들은 성모님을 기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천사들과 성인들에 둘러싸여 나타난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성모님의 영혼을 조심스레 하늘나라로 모셔가는 것을 보았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사도들은 성모님의 시신을 겿세마네 동산의 무덤으로 운구하였고, 그곳의 부모님 묘지 가까이에 안장하였다.

제자들은 겿세마네 동산의 성모님 무덤 둘레에 모여 삼 일 동안 철야예배를 드렸다. 삼 일째 되는 날 토마 사도가 도착하였고, 마지막으로 성모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사도들이 성모님의 무덤을 열었을 때, 성모님의 몸이 그곳에 없었다. 그때 사도들은 비로소 성모님이 몸째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자신의 영혼과 결합되었음을 깨달았다.

▶ 아타나시아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성당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 소 식

#### 대교구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 지난 8월 6일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로만 신부, 요한 보제가 함께 집전하며 축일 성찬예배를 거행하였습니다. 각 지역 성당에서 신자들이 참여하였고, 슬라브어 사용 신자들과,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성찬예배 후에는 다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고, 점심 식사 후에는 수련회 참석 학생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배웠던 주제, 구호, 노래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가티 백은영 수녀께서 수도원 축일을 맞이하여 식사 등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수녀님을 도와 함께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름 영어 캠프 ▷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춘천 사회복지관에서 7월 29일(토)부터 8월 4일(금)까지 초등부, 8월 4일(금)부터 8월 6일(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영어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9일 각 지역 성당의 학생들이 도착한 오후에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 이번 캠프의 주제인 ‘하느님 나라의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수련회의 부책임자인 엘레니 조혜원 교우가 주방 봉사자들, 원어민 영어 교사들, 보조 교사들, 매일의 일정과 각 반의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

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이름들은 주님의 구복단 설교 말씀에서 따온 것으로 매일 성서 공부의 주제가 되어 학생들이 구복단에 대해서 더욱더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시간을 가졌고, 매일 오전에는 영어 공부, 오후에는 야외 활동을 비롯하여 많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부 때는 모두 약 60여명, 중,고등부는 모두 약 50여 명이 함께하여 더욱더 풍성한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이끌어 주신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 수련회 총책임자이신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 페리 하말리 보제를 비롯하여, 영어 원어민 교사로 오신 Maria Mokka, Melpomeni Mokka, Sarah Manuel, Gia Hamalis, 스템으로 수련회 부책임자인 엘레니 조혜원, 바실리아 서재은, 크리스티나 조혜린 소티리아 이승혜, 이 빅토리아, Christopher Jonker, 루가 김민석, 토마스 정한결, 서요한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해주신 바실리오스 이성일, 테오도티 이정아 사모, 아나스타시아 박혜경 사모, 베로니카 박인애, 요안나 김미옥, 니끼 김종희, 아글라리아 조희영, 나탈리아, 알라, 카를라 교우들과 또한 많은 면에서 도움을 주신 토마스 하정훈 교우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간 예식

. 8월 15일(화) 성모 안식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